

〈겨울연가〉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의 문법과 자아 발견의 서사

The Grammar of Melodrama and the Narrative of Finding True Self in <Winter Sonata>

김남석*

국문초록 〈겨울연가〉는 2000년대 일본에서 한류 열풍을 주도한 텔레비전 드라마 작품이었다. 이 작품의 일본 열풍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놀라게 했다. 이후 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그 연구의 대부분은 한류 열풍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연구였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작품 내적 특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외적 요인에 관심을 돌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심지어 일본 측 연구에서는 한류가 한국의 영향이 아니라 일본의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시야를 텍스트 내로 환원하여, 멜로드라마로서 〈겨울연가〉와 자아 발견의 서사가 중층적으로 결합된 특성에 주목하고자 했다. 〈겨울연가〉는 멜로드라마의 특성과 문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자기를 찾기 위한 시도를 병행하는 서사적 목표를 겨냥한 작품이었다. 따라서 〈겨울연가〉는 기본적으로 멜로드라마의 문법과 특징에 충실하여 낭만적 감정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서사의 요체로서 자아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문과 성찰을 예비할 수 있었다. 한류의 성공은 이러한 두 가지 내적 성향을 병행시킨 점에서 연원한다.

핵심어 〈겨울연가〉, 멜로드라마, 한류, 연애, 자아 찾기

- 차례**
1. 〈겨울연가〉에 대한 선행 연구와 문제 제기
 2. 낭만적 정서와 연애의 감성
 3. 자아의 정체성과 이별의 상관성
 4. ‘길을 잃는 것’과 ‘사람을 잃는 것’
 5. ‘누군가’를 찾는 일과 ‘나’를 찾는 일

이라고 지적되고 있고, 이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과 지지를 바탕으로 적지 않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일련의 학문적 접근도 활성화되었다.

지금까지 제기된 선행 연구 중 주요 논점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묶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유형은 〈겨울연가〉의 서사적 특징과 텍스트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¹ 두 번째 유형은 문화콘텐츠로서 변화 가능성과 한류 열풍의 추동

1. 〈겨울연가〉에 대한 선행 연구와 문제 제기

흔히 〈겨울연가〉는 한류의 출발점으로 인정된다. 많은 연구와 논평에서, 2003년 4월 일본에서 방영된 〈겨울연가〉가 일본 내 한류의 시작, 혹은 제1차 한류 열풍의 핵심

1 김호연, 「〈겨울연가〉, 그 내적 체험을 위한 검토」, 『언어와 문화』 1(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5, 117~130쪽; 백승국, 「드라마 〈겨울연가〉 내러티브의 기호학적 분석」, 『텍스트언어학』 18,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5, 59~90쪽; 정혜경, 「〈겨울연가〉의 패러독스」, 『일본문화연구』 41,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 527~557쪽; 이인표, 「〈겨울연가〉(2003)를 통해 본 멜로드라마의 장르론」, 『아시아문화연구』 62, 아시아문화연구소, 2023, 73~100쪽.

* 국립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가능성을 타진한 연구이다.² 세 번째 유형은 <겨울연가>를 비롯한 일련의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매체 양식과 공유 사안을 진단한 연구이다.³ 네 번째 유형은 <겨울연가>를 통해 매체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연구이다.⁴ 마지막 유형으로 <겨울연가>의 표현과 번역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⁵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의 접근 방식과 분석 시각이 상이하야, <겨울연가>가 일으킨 서사적, 사회적, 경제적, 매체적, 유형적 특징을 각 방향에서 진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겨울연가>가 동시간대 인기를 얻던 시점에서는 텍스트의 특징과 내적 의미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으나, 점차 한류 열풍과 콘텐츠의 활용 측면에서 <겨울연가>를 바라보는 연구 성향이 우세해졌다. 그 과정에서 <겨울연가>의 내재적 의미나 장르적 특성 혹은 영상 미학적 효과를 세밀하게 살피는 연구는 거의 산출되지 않았고 일부 그러한 경향을 보이던 연구는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기존 연구의 방향은 <겨울연가>를 한류 열풍의 척도나 요인으로 간주하고 사회학적 시각을 앞세워 그 활용 방안을 주목하는 방향에 매몰된 형편이다. 한류 열풍을 이끈 텔레비전 드라마로서의 대외 효과와 관련 위상을 살피는 데에 주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작품의 내적 분석에 다가가는 연구는 제한적일 따름이었다. 선행 연구의 이러한 방향과 지금까지 결과는 <겨울연가>의 텍스트 층위를 재고하고 그 미학적 효과를 분석하

는 연구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더구나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해석하던 기존의 견해와 상반된 견해도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겨울연가>에 대한 변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관련 연구에 의거하면, 2003년 <겨울연가>(2003년 4월 NHK 위성 제2채널에서 방영)의 인기는 한국형 영상콘텐츠의 일본 내 유행을 보여주는 지표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 현상과 그 의미에 대해 주관적으로 접근한 칸 사토코의 논지를 인용하면,⁶ 그것은 일본 내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던 ‘순애’의 개념에 <겨울연가>가 부합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지니는 타당성은 점검되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여타의 다른 국가에도 순애의 역사와 유행은 목격되는 현상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겨울연가>가 반드시 그러한 국가에서 유행했던 기존 범주의 감정과 동일하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칸 사토코의 주장은 일본이나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형 영상콘텐츠를 선호하거나 주목할 때 그들의 내적 이유와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상기시키기는 한다.

기존 선행 연구의 편중 현상과 칸 사토코의 연구를 능동적으로 재고하기 위해서 <겨울연가>의 미학적 효과, 서사적 기능, 그리고 내적 의미를 과거와는 달리 충실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겨울연가>의 미학적 효과가 드러날 수 있으며, 텍스트 내 서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내재적 의미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겨울연가>가 멜로드라마의 전형적인 특징으로서 낭만성을 제고하고 연애의 감수성을 확장시킨 텍스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그러한 전형적인 문법이 자아의 정체성을 찾고 상대의 의미를 탐구하는 형식을 겨냥했다는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2 신광철, 「한일간 문화콘텐츠 교류의 현대계와 전망」, 『日本思想』 9, 한국일본사상학회, 2005, 193~216쪽; 오미영, 「일본 내 한류 수용과 타자(他者) 인식의 변화」, 『현상과 인식』 30(1),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6, 34~56쪽; 양은경,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텔레비전의 소비」, 『한국방송학보』 20(3), 한국방송학회, 2006, 198~238쪽.

3 최영목, 「동북아시아 지역의 텔레비전 드라마 유통과 민족주의」, 『언론과 학연구』 6(1), 한국지역언론학회, 2006, 463~497쪽; 김기국, 「드라마의 신드롬과 미디어의 탈신화화 <겨울연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131~158쪽.

4 김동주,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15(1), 한국방송공사, 2003, 223~249쪽.

5 권현주, 「일본어 가나(カナ)표기의 변화 양상에 관한 考察」, 『日本語文學』 1-28, 한국일본어문화회, 2006, 3~24쪽.

6 칸 사토코, 「근·현대 일본의 연애 사정」, 『여성학논집』 23(1), 한국여성연구원, 2006, 251~280쪽.

2. 낭만적 정서와 연애의 감성

2.1. 장소의 반복과 감정의 누적

강준상과 정유진의 첫 데이트는 낭만적 정취를 물씬 풍광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가을에는 낙엽 쌓인 호젓한 숲길을 걷고 겨울에는 눈으로 덮인 나무 사이를 걸으며, 자신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 첫 데이트 당시 그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서적 표현은 과도한 측면이 다분하지만, <겨울연가>는 이러한 상황에 좀처럼 구애받지 않고 연인의 정서와 연애의 정서를 표출하는 데에 주력했다.



강준상과 정유진의 첫 데이트(제1회)⁷ 강준상과 정유진의 첫눈 오는 날(제2회)

낭만적 정취는 강준상을 닮은 이민형이 등장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강준상과 방문했던 장소를, 유진은 때로는 이민형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고, 때로는 홀로 방문하기도 했다. 동일 장소를 거듭 방문하자, 해당 장소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장소에 대한 기억 역시 누적되었다. 이러한 반복된 방문은 해당 장소에 대한 장소감을 생성하였다.⁸

강준상 혹은 이민형과 방문한 장소는 정유진에게 기억과 감정의 누적을 추동시켰고, 이러한 장소에서 생성되는 장소성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상대의 연애 감정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동일 장소에 대한 친숙성을 제고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감정을 심화해 나가는 방식은, <겨울연가>에서 낭만적 정서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대표적인

방식(문법)에 해당한다.



이민형과 같은 장소를 찾은 유진(제7회) 이민형과 헤어져 홀로 방문한 유진(제12회)

텍스트 내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의 데이트 장소는 <겨울연가>에서 반복적으로 형상화되면서, 작품 내에서 일정한 리듬을 형성해 나간다.⁹ 제1~2회, 그리고 시간이 지나 첫사랑의 기억이 아련해진 이후인 제7회, 제12회, 그리고 제15회에서 이러한 리듬은 중요한 차이를 지닌 채 반복되고, 반복되는 차이는 변주 효과를 유발한다. 그 차이는 감성의 차이이기도 하다.

또한 해당 리듬은 일종의 대비 효과도 겨냥하고 있다. 그것은 준상으로서 방문하는 경우와, 준상의 이름을 잃고 이민형으로 방문하는 경우, 그리고 준상의 이름을 되찾고 과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로, 방문 시기가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비록 같은 장소이지만, 방문 시점마다 해당 장소에 접촉하는 감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10년 전 소년 준상으로 방문했을 때는 ‘복수’라는 감정적 동요를 누르는 첫사랑의 감성이 부각되었고, 이민형의 이름으로 방문했을 때는 유진의 기억을 더듬도록 만드는 이민형의 ‘존재감’이 부가되었으며, 준상의 이름을 되찾았을 때는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10년 전 준상의 기억과, 10년 후 이민형의 기억, 그리고 10년 전을 찾는 준상-민형의 기억이 별도로 나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존하는 시간대가 형성될 수

7 이후 <겨울연가>의 화면(컷)은 다음에서 인용하였다. 윤은경·김은희 극본, 윤석호 연출, <겨울연가>, 2002, <https://vod.kbs.co.kr/>.

8 박규태, 「한류담론과 일본문화」, 『日本學研究』 24, 일본연구소, 2008, 39~66쪽.

9 장소성의 문제를 영상미학적 차원에서 본다면, 익숙한 장면을 거듭하면서 작품 내에 일정한 리듬과 의미를 반복적으로 투영하는 ‘반복 영상’의 기법으로 파악될 수 있다(스테판 샤프, 이용관 역, 『영화구조의 미학』, 영화언어, 1991, 113~124쪽).

있었다. 희미하게 남은 사진 같은 10년 전 기억과 생소한 느낌으로 재현된 현재 풍경은, 동일 공간 내에서 기묘한 대조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대조는 10년을 건너 대비되는 유년의 과거와 성년의 현재를 낭만적으로 인식하도록 중용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름을 찾은 후 재방문(제15회)

10년 전 추억의 재소환(제15회)

또렷한 형상으로 포착되는 준상·유진의 현재 모습은 희미하게 남아 있는 과거 기억과 의미심장한 대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화면 내에서 대상의 크기도 기묘한 대조를 이루지만,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 역시 대비감을 형성하면서, 과거의 기억은 멀게, 현재의 풍경은 가깝게 위치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효과는 카메라가 명시적으로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강준상의 기억을 되찾으려고 시도하는 이미형의 내면 풍경을 형상화하는 하나의 시각이자 자체 문법이다. 더구나 제1~2회, 혹은 제7회, 나아가서 제12회에 형상화되었던 동일 장소에 대한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관람 기억을 되살리는 기능도 수행한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한 장소에 누적되는 다양한 체험, 그리고 낭만적 정서를 부각하는 기능과 긴밀하게 맞물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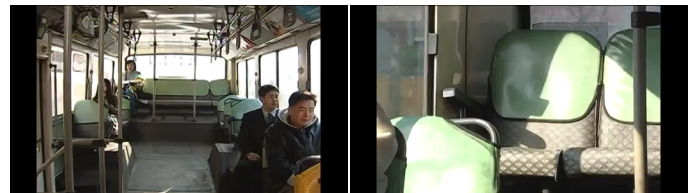
〈겨울연가〉는 동일 장소에 대한 거듭되는 방문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장소성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장소성은 유진과 준상(민형)에게 낭만적 정서의 누적된 체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체험은 연애의 감정을 일으키고, 되살리고, 나중에는 미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감정의 누적을 통한 감성의 폭주를 유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낭만적 정서를 재향유하려는 성향은 〈겨울연가〉의 시청자들이 훗날 해당 장소를 찾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 특히 이러한 장소성을 구현한 텔레비전 드라마 촬영지 방문은 한류 열풍과 틈타 외국인들의 방문 효과를 제고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¹⁰ 이러한 현실적인 활용까지 포함하여, 〈겨울연가〉에서 구현하는 장소성은 기억의 확장과 감정의 누적에서 연원했다고 할 수 있겠다.

2.2. 연기된 약속과 재현된 기억

준상과 헤어진 이후에도 유진은 버스 뒷자리, 그것도 맨 뒤 좌측 구석에 앉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유진은 준상과 처음 만나고 함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습관을 고수하고 있었다.



준상의 기억을 간직하려는 유진의 노력(제3회)

준상의 기억을 지우려는 유진의 노력(제3회)

멜로드라마에서 약속 불이행과 지연 현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서사적 관습이다. 〈겨울연가〉에서도 서사상 관습은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고등학교 시절 준상은 12월 31일에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10년이 지난 후 유진은 상혁과의 약혼식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한 두 약속은 연관되어 있다. 12월 31일 준상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유진은 10년 동안 준상이 죽었다고 여겼고 그와의 약속이 무산되었기에 그를 잊고 새로운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날인 약혼식 당일 유진은 준상을 닮은 남자를 거리에서 목격하는 바람에, 과거의 약속에 얽매어 현재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10년 전 유진은 거리에서 준상을 기다리고 있었고, 준상은 그날 유진을 만나기 위해서 그거리로 돌아오고 있었

¹⁰ 최인호, 「일본 관광객의 한류관광 체험」, 『소비문화연구』 9(3), 한국소비문화학회, 2006, 120~128쪽.

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만날 수 없었는데, 유진은 10년 전 그날 그 거리에서 준상을 찾을 수 없었던 아픔을 잊지 못했다. 10년이 흐르고 그때의 기시감이 생겨나자, 유진은 예전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10년 전 연기된 약속으로 인해 10년 후 약속은 다시 연기되고 말았다.

약혼식이 무산된 것을 안타까워한 친구들은 유진의 약혼식을 재추진한다. 그들이 다녔던 모교에서 다시 치르기로 한 약혼식에는 오지 말아야 할 손님도 참여했다. 외국에서 살던 채린이 참여했고, 채린의 남자 친구 이민형도 참여했다. 이민형은 유진이 거리에서 보았던 그 남자로, 누구 보아도 10년 전 준상의 모습 그대로였다.

약속 불이행 혹은 연기된 약속은 이후 결혼식에서도 반복된다. 유진과 상혁은 이민형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결혼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이민형의 등장에 불안을 느낀 상혁은 일방적으로 결혼을 강행하려고 하지만, 이민형이라는 틈입자에 의해 이 결혼식도 연기되고 결국에는 성사되지 못한다.

연기된 약속은 약속을 믿었던 인물들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기 마련이고, 정신적 상처와 감정적 손실을 입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최초의 약속은 신성한 약속으로 취급된다. 유진이 과거의 준상을 잊고 현재의 상혁에게 충실하겠다고 공언하고, 준상이 아닌 민형에 대한 사랑을 접고 오랫동안 자신의 곁에 있어 준 상혁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고 결심해도, <겨울연가>에서는 민형이 준상이라는 사실이 그 모든 약속과 결심을 뒤바꾼다.

그리고 멜로드라마 문법은 이러한 최초의 약속을, 그 이후 생성된 모든 약속에 선행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묘사한다. 자연스럽게 불이행된 최초의 약속은 그 이후 생성된 어떤 약속보다 우선시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그 논리가 서사 전반에 걸쳐 통용되고 만다. 바꾸어 말하면 불이행된 원초적 약속이 이행될 수 있어야만, 상처가 치유되고 질서가 복구되며 인물들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

한편, 두 남녀가 10년 세월을 건너 재회하고, 슬한 오해와 다양한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랑을 되찾는 과정은 그 자체로 낭만적 감수성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은 미진했던 과거 혹은 지연된 약속 내지는 공유했던 기억을 다시 재현하여 반복하고 이를 반추하는 행위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10년이라는 시간은 아득함을 동반하며, 그들의 사랑의 깊이를 심화하는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효과는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여, 두 사람 겪는 애정의 확고부동함을 부각하는 기능도 동반한다. 당연히 이러한 서사적 효과는 연기된 약속의 이행을 통해, 단절된 기억의 재현 기능을 유발한다. 로맨스의 효과가 살아나면서 멜로드라마 특유의 낭만적 정서가 고양되는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겨울연가>는 로맨스 드라마 혹은 멜로드라마의 통상적 문법을 수용한 작품이다. 그리고 연애와 낭만의 정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문법과 감성을 적절하게 변형 수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겨울연가>는 그 자체로 정련된 멜로드라마의 전형이라 하겠다.

3. 자아의 정체성과 이별의 상관성

3.1. 출생의 비밀과 재회의 충격

<겨울연가>는 전형적인 멜로드라마 감성에만 충실한 작품은 아니었다. <겨울연가>의 특징은 이러한 낭만적 감성을 자아 탐색의 서사와 관련짓고, 낭만적 연애의 감성과 함께 발견된 삶의 의미를 연계하여 그 희비와 등락 그리고 이율배반적 관계를 그려낼 수 있었다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겨울연가>에 나타난 출생의 비밀과 그 추적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강준상의 의사 죽음(기억 상실)은 출생의 비밀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고교 시절 강준상은 어머니의 어릴 적 친구인 김진우 교수를 자신의 아버지로 의심하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춘천으로 전학했을 뿐만 아니라, 김 교수가 강의하는 대학의 강의실로 찾아가 도강을 시도하기까지 한다. 뛰어난 수학 실력을 발휘하여 김 교수의 눈에 드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예상과 달리 냉담한 교수의 반응에 강준상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김 교수의 아들인 상혁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상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분풀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강준상의 계획은 어긋나면서, 상혁이 사랑했던 정유진과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만다.

그 과정에서 당초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었던 상혁의 부친이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자랐던 유진의 부친이 아버지일 가능성이 커지자, 강준상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진의 부친이 아버지일 경우, 자신은 유진과 이복 남매가 되기 때문인데, 이 사실을 깨달은 강준상은 춘천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부랴부랴 출국을 강행하던 날, 강준상은 유진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 장소를 향하고자 했고, 그 중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한편 약속 장소에서 꼬박 강준상을 기다렸던 유진은, 다음 날 학교에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 비보를 접한 유진은 첫사랑을 잃은 슬픔에 통곡해야 했지만, 그럭저럭 10년을 그를 가슴에 묻은 채 살아야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유진은 어릴 적 친구인 상혁과 약혼을 앞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물론 그들은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할 사이였고,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한 그들 사이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이민형이 등장한 시점은 약혼을 목전에 둔 시점이었다. 강준상을 완벽하게 닮은 그의 모습에 유진은 다시 큰 충격을 받고, 현실의 약혼식을 미루고 그를 찾아 나서는

용단을 감행한다. 결국 약혼식은 무산되고, 강준상을 찾는 일도 무산되었지만, 이 일을 통해 유진은 자신의 마음 속에 아직도 강준상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겨울연가>는 이러한 유진의 첫사랑을 일종의 운명으로 바꾸는 문법을 시도했다.

<겨울연가> 전체 20부작에서 10부작에 이르는 약 절반의 분량은, 강준상을 잊지 못하는 정유진과 새롭게 등장한 이민형의 만남과 사랑을 다루고 있다. 전체 서사에서 절반의 서사가 기묘하게 닮은 강준상에게 끌리는 유진의 마음과, 그러한 유진을 바라보며 사랑에 빠져드는 민형의 서사로 채워진 셈이다.

하지만 제10회를 기점으로 서사의 기조는 변화한다. 제10회 서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유진과 민형의 작별이다. 그리고 <겨울연가>의 서사는 민형의 자아 찾기에 집중한다. 민형이 준상일 수 있다는 단서들이 산포되면서, 민형은 준상을 찾기 위해 시도하고, 결국 제11~14회에 이르는 서사는 이러한 민형의 자아 찾기로 채워진다.

이로 인해 유진과의 사랑도 그 양상이 달라진다. 민형이 준상이고, 잃어버린 준상의 자아가 돌아오자, 유진 역시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준상을 되찾아야 했다. 결국 준상이 된 민형을 유진이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재개된다.

두 사람의 사랑이 재개되면, <겨울연가>의 서사 기조는 다시 변화한다. 제15회에서 제18회에 걸쳐 준상의 아버지 찾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억의 편린을 결합하여 자신을 찾은 준상은, 그 기억의 끝을 이어 10년 전 자신이 시도했던 아버지 찾기에 나선다. 이러한 아버지 찾기는 유진과 준상의 사랑을 다시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정현수라고 믿게 된 준상은 유진을 떠나야 했고, 유진 역시 그토록 사랑하는 준상이 배다른 남매라는 사실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만다.

하지만 준상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김진우 교수로 밝혀지면서, <겨울연가>의 서사는 다시 반전할 기회를 얻는다.

유진과 혈연적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준상은 생사를 기로에 선 큰 병을 앓게 되고, 유진의 앞날을 위하여 자신이 떠나는 결단을 내린다. 준상은 미국으로 떠나고 유진과 다시 헤어진다.

출생의 비밀은 <겨울연가>의 서사를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우선 준상과 유진이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출생의 비밀을 풀기 위한 준상의 선택 때문이었다. 하지만 출생의 비밀로 인해 준상은 떠나야 했고, 유진과 10년을 헤어져 살아야 했다.

유진이 다시 사랑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 계기도, 이러한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다. 준상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강미희(준상의 어머니)는 이민형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꾸고 만다. 준상으로서의 기억을 잃은 민형은 어머니의 뜻대로 자신을 이민형으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었고, 이러한 민형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돌아와 유진과 재회할 수 있었다.

유진과 사랑이 재개되는 이유도 민형이 자신이 준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고, 다시 유진과 헤어지는 이유도 그러한 준상이 정현수의 아들일 수 있다는 비밀을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민형은 마지막에 자신이 정현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진 역시 민형과 자신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만, 그들은 서로의 삶과 상대의 입장을 존중해서 헤어지기로 결정한다. 유진은 준상이 바랐던 그녀의 삶을, 준상은 유진을 고통 속에 몰아넣지 않는 자신을 원했기 때문이다.

3.2. 자신을 찾으려는 모험과 아버지를 찾으려는 시도

출생의 비밀은 크게 ‘자아 찾기’와 ‘아버지 찾기’로 나뉘는데, 아버지의 정체성을 추적한 아들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여인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발견된 아버지의 정체로 인해 그 연인과 헤어져야 하는 운명에 직면한다. 이때 자신과 아버지를 찾은 기억을 동시에 잃어야 했던 서사가 과

거의 서사였다면, 자신의 정체와 아버지의 정체를 찾았지만 궁극적으로 연인을 다시 잃어야 했던 서사가 현재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출생의 비밀과 그 발견은 끊임없이 이별을 추동하고, 그 이별은 슬픔의 정서를 되새기도록 하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겨울연가>였던 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서사의 마지막에서 눈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은 준상과, 한때 준상을 잃었지만 자신을 확고하게 한 유진이 다시 만나는 장면은 주목된다. 그들의 연애가 완성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출생의 비밀을 던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타인과의 관계를 완성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기억과 자아가 완전하지 못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은 만남의 기쁨과 재회의 충격이 우선했지만, 기억과 자아를 확립한 이후에 이루어진 세 번째 만남이자 두 번째 재회는 그들의 삶에 충격이 아닌 안정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겨울연가>에 안배된 출생의 비밀과 이를 밝히는 과정은 다소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개연성이 희박하고 인과성도 떨어진다. 우연이라는 명분으로, 과거의 인연이라는 설정으로 인해 간신히 성립될 수 있는 전체 일 따름이다. 그리고 인연을 운명으로 치환하여, 젊은 남녀의 만남과 이별, 우정과 사랑, 질투와 경쟁, 때로는 죽음과 회생의 모티프를 연동하고자 했다. <겨울연가>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운명처럼 다가온 자신의 연인을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잃어버릴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랑을 완성하는 여정에 자신을 찾는 여정—특히 강준상의 자아 찾기와 아버지 찾기—이 결부되면서 자신의 정체를 묻고 자신의 연원을 찾는 과정이 멜로드라마의 감상성을 일부 희석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떨어지는 만남과 헤어짐에 주체의 의지로서 자신을 찾으려는 의지를 포함하는 긍정적 성과를 지향할 수 있었다. 상투적일 수 있는 연애의 공식에 자신을 찾는 마음의 여정을 그나마 결부시켰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4. '길을 잃는 것'과 '사람을 잃는 것'

: 자신을 찾는 서사 대 사랑을 찾는 서사

〈겨울연가〉의 서사는 '자신을 찾는 서사'와 '사랑을 찾는 서사'라는 두 가지 힘으로 추동된다.¹¹ 전체 서사의 서두 격인 제1~2회 서사는 준상이 자신을 찾는 일에서 시작하여 사랑을 찾는 일로 나아가고, 그 사랑을 찾는 순간 자신까지 찾는 바람에 찾았던 사랑을 잃어야 하는 서사로 매듭지어진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랑을 잃는 서사는 다시 자신을 잃는 서사로 변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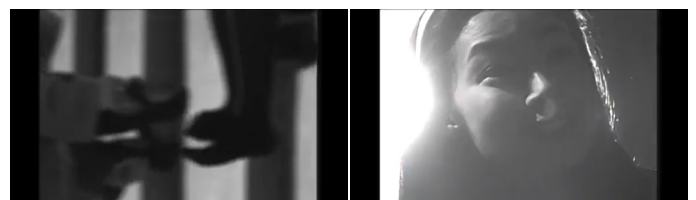
준상이 아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춘천으로 이주하는 일이 자신을 찾는 일의 시작이었다면, 김진우 교수의 아들 상혁을 알고 그 친구인 유진은 사귀는 일은 사랑을 찾는 일에 비견된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유진의 아버지와 동일인이라고 믿게 되면서, 준상은 유진을 잃어야 했고 자신마저 잃어야 했다.

민형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제3회에서 유진이 상혁에게 돌아가는 제10회에 이르는 도정은 민형과 유진이 새로운 사랑을 찾는 서사에 해당한다. 유진은 민형이 누구인지 모르고 민형 역시 유진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이 대목에서는 사랑을 찾는 서사가 주를 이루지만, 자신을 찾는 서사가 결여되는 바람에 이 사랑은 다시 무산된다. 유진을 놓칠 수 없었던 상혁이 두 사람을 방해하고 그 방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상대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믿게 된다. 새로운 사랑을 찾는 서사가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찾는 서사는 완성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자신을 찾는 서사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11회에서 제14회에 이르는 도정은 지연된 사

랑의 서사를 다시 잇는 기능을 한다. 그것은 민형이 자신의 기억 속에서 준상을 찾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형은 자신이 준상이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추적하기 시작하고 중국에는 자신이 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형이 자신을 찾는 일은, 유진에게도 준상을 찾아야 하는 당위성을 일깨운다. 그러자 자신을 준상으로 확신한 민형과, 민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한 유진은 재회할 수 있었다.



10년 전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신발을 신겨 주던 기억(제14회)

출국 직전 공항에서 유진의 기억을 복원하는 민형(제14회)

〈겨울연가〉에서는 기억 복원 과정에 자아 정체성을 의미하는 신발을 위치시켰다. 준상은 미국으로 향하는 공항에서, 신발에 대한 기억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기억을 복원시킬 수 있었다.¹² 신발을 통해 복원된 기억 속에는 누군가의 영상이 스며 있었고, 그 누군가의 영상 속에 자신도 함께 담겨 있었다. 이때 기억 속 신발은 사랑의 상징이었고, 타인의 흔적이었으며, 자신의 분신일 수 있었다.

이 신발의 기억 이후 민형은 준상을 되찾고, 유진은 준상을 되찾고, 준상은 유진을 되찾는다. 〈겨울연가〉 제14회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준형과 자신의 사랑을 되찾은 유진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점에서, 자신을 찾는 서사와 사랑을 찾는 서사가 모처럼 합일되어 조화를 이루는 회 차라고 하겠다.

하지만 합일되었다고 생각하는 두 서사는 다시 어긋나기 시작한다. 제15회에서부터는 준상이 자신의 기억을 더 깊숙하게 되찾(으려)는 서사가 진행되고, 기억을 복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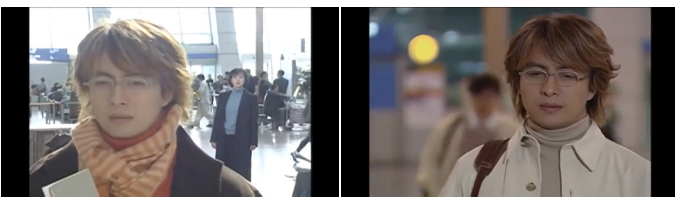
11 〈겨울연가〉에서 '나는 누군인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이 제시된 바 있다(김호연, 「〈겨울연가〉, 그 내적 체험을 위한 검토」, 『언어와 문화』 1(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5, 121쪽).

12 고대의 신화에서부터 신발은 자아의 상징을 나타내며, 현대 영화콘텐츠에서 신발 모티프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호로 활용된다(김남석, 『영화, 어떻게 읽을 것인가』(II), 연극과인간, 2023).

서사는 점차 아버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서사로 옮겨간다. 그로 인해 베일이 가려 있던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복원되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사랑(찾기서사)에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유진이 준상과 이복남매일 가능성이 커지자, 자신을 찾는 서사가 사랑을 찾는 서사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러한 결과에 저항하지만, 당대의 관습에 따라 혈연 간 결혼 장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인정되기에 이르고, 두 사람은 불가항력으로 헤어져야 할 순간을 맞이한다.

〈겨울연가〉 제14회에서 유진과 준상은 공항에서 극적으로 재회하여 이별이 연기된 바 있지만, 제20회에서는 유진이 준상을 공항에서 찾지 못했고 준상은 미국으로 떠나면서 연기되었던 두 사람의 이별이 실행되고 말았다.



공항에서 재회한 유진과 준상 : 지연된 이별(제14회)

공항에서 홀로 출국하는 준상 : 이행된 이별(제20회)

〈겨울연가〉는 제19회까지 준상과 유진의 이별을 반복적으로 그려내고 있었고, 제20회에서는 두 사람이 마지막 이별을 그려내고 있다. 이때 두 사람이 헤어지는 원인은 준상과 유진이 이복남매라는 사실에서 기원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 사실이 오해라고 밝혀진 뒤에도 예정된 이별은 감행된다. 심지어 유진은 준상을 만나기 위해 미국(뉴욕)에 갈 기회까지 얻었음에도, 두 사람은 약속했던 대로 각자의 삶을 먼저 추스르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이별 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연계되어 있다. 비록 이복 남매의 위험은 사라졌지만, 이때 준상은 죽음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고 유진은 준상과의 약속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자신을 찾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

했다. 준상은 유진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을 추스르는 일에 집중해야 했고, 유진 역시 행복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예정했던 공부(유학)를 마무리해야 했다.

각각의 자아가 자신을 찾는 일을 먼저 완수한 다음, 사랑을 찾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은 제20회에서 재회로 이루어진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고 그들의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유학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루고 그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자신을 찾는 일과 사랑을 찾는 일이 결과적으로 다시 합일되는 결론을 포괄할 수 있었다.

자신을 찾는 일은 길을 잃은 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이다. 사랑을 찾는 일은 사람을 잃은 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이다. 두 임무는 자신을 잃고 길을 잃은 자들이 어떻게 사랑을 찾아 사람을 되찾는지를 일단 나누어 보여 준다. 그러니까 멜로드라마의 낭만적 사랑과 함께 길을 잃고 사람을 잃은 이가 어떻게 사랑을 통해 자신을 되찾고 타인과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멜로드라마의 양식은 흔히 상대에 대한 욕망을 부풀리고 그 욕망의 충족을 통해 사랑의 가치를 확대 포장하려는 습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겨울연가〉 역시 이러한 서사의 관습과 멜로드라마의 습성에서 한없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하지만 사랑을 찾고 사람을 되찾는 의의를 자신을 찾고 길을 찾는 의미와 결합했다는 점에서 기존 멜로드라마가 빠져 있는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겨울연가〉의 보편성을 형성하고 그나마 유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길을 잃은 자가 기억을 복원하여 자신을 찾는 일은 분명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그 길의 끝에서 자신과 함께 타인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 일에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겨울연가〉는 그 도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더구나 그 가능성을 낭만적으로 보여 주는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신기원

을 열 수 있는 기반과 그 가능성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은 한류의 시작을 알리는 가능성이기도 했다.

5. ‘누군가’를 찾는 일과 ‘나’를 찾는 일

: 갈등이 끝나는 곳에서 자신이 발견된다.

멜로드라마의 관점을 배제한다면, <겨울연가>는 끊임 없이 누군가를 찾는 서사가 반복되는 작품이다. 어릴 적 준상은 아버지를 찾아 유진의 곁으로 왔고, 이후 유진은 준상을 찾아 성년의 날들을 헤매야 했다. 특히 약혼식 날은 준상과 닮은 남자를 쫓아 길거리를 헤맸고, 그 이후 그러한 유진을 쫓아 상혁이 그 길거리를 헤맸다. 이후에는 자신에게 낯선 반응을 보이는 유진의 정체를 알기 위하여 이민형이 나섰고, 집요한 추적 끝에 유진과 진상의 옛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이민형은 자신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 다시 나서야 했다. 전체적인 서사로 볼 때, 이민형은 자신을 찾아 나선 여행자였고, 자신의 정체를 알기 위하여 길을 나선 순례자의 형상이었다.

그만큼 <겨울연가>에서 자신을 찾는 과정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서사 모티프이다. 이 모티프는 문학과 예술의 본질적 물음을 함축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모티프이다. <겨울연가>는 이러한 보편성을 활용하여, 준상 혹은 민형에게 자신을 찾는 길로서 연애와 사랑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겨울연가>가 멜로드라마의 문법에만 스스로 치중하는 작품으로 매몰되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자기 발견 서사를 통해 멜로드라마의 서사에 윤기와 탄력을 부여할 수 있었다. 준상(민형)을 중심으로 이 자기 발견의 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겨울연가>의 서사는 제1회부터 누군가를 찾는 일의 의미심장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중요한 복선으로 매설하

고 있다. 준상은 왜 전학을 왔느냐는 질문에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고등학생의 신분에서 전학은 단순한 일이 아니며 그가 서울에서 다닌 학교가 명문고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선택은 단순한 선택으로 볼 수 없다.

강준상의 전학을 일종의 자의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이 찾는 누군가를 완수하기 위하여 춘천에 향하는 모험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준상은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하여 춘천으로 이주해야 했고, 예상했던 바와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정체를 어렵פות하게 짐작하는 순간 춘천을 떠나야 했다.

준상에게 아버지를 찾는 일은 자신을 찾는 일의 첫걸음이었다. 그의 어머니 강미희는 피아니스트로 막대한 명성과 부를 쌓고 있었고, 강준상 자신도 걸출한 수학 실력에 피아노 연주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훗날 강미희는 강준상은 이로 인해 늘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한 바 있고, 유진 역시 이러한 강준상의 모습에서 마음의 그늘과 위축된 해동을 보곤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강준상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를 통해 자신이 누군지를 찾는 일은 중요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는데,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아버지의 정체를 확인하자, 그는 더 이상 춘천이자 한국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의 정체를 발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자, 그는 새로운 갈등에 휩싸이며 자신의 정체를 부정하고 자신의 거처를 옮겨야 했다. 자신을 발견하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 셈이다.

왜냐하면 그는 되찾은 아버지로 인해 새로 찾은 연인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그는 기억을 잃었고, 이름을 잃었고, 강준상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었다. 그 자체는 불행이자 비극이었지만, 그로 인해 연인과의 새로운 인연을 이어갈 여지를 남길 수 있었다.

이렇게 제1~2회는 일종의 서두로 아버지의 정체성을 확인하자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제3회는 1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이다. 그곳에서 유진은 건축가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강준상을 너무나 닮는 남자와 조우한다. 그리고 어딘가에 흘린 듯 그녀는 그를 따라나선다. 그때 유진은 10년 이후의 정체성을 잃고 10년 전 고교 시절 강준상과 함께 있던 유진의 정체성으로 돌아간다.

강준상의 입장에서 보면, 제3회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시점이다. 그는 자신을 이민형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의 상실로 인해 자신이 강준상일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는 상태이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성장하고 자랐고, 그곳에서 공부하여 지금의 천재 건축가가 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자신을 누군가와 닮았다고 말하는 다수의 사람을 만난다. 파리에서 만난 오채린으로부터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점차 자신을 강준상과 혼동하는 일련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점차 의문과 회의를 품기 시작한다. 그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인물이 유진이다.

유진은 이민형과 마주 앉은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그와의 재회에서 받은 충격을 내보였다. 그리고 이후 유진과 이러저러한 만남을 이어가면서 이민형은 자신과 닮은 강준상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강준상과 유진이 깊게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점차 자신이 유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과정을 요약하면서 자신을 이민형이라고 믿는 강준상은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민형은 강준상이라는 또 다른 자신과, 강준상의 중요한 일부였던 유진이라는 과거를 발견했고, 어느

새 유진을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셈이다. 그 발견은 곧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고, 보이지 않은 혼란의 시작이며, 내면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표면적으로 결실을 맺는다. <겨울연가> 제8~9회에는 민형의 고백과 사랑의 표현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민형은 유진을 향한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심정을 유진에게 고백한다. 유진 역시 민형에게 끌리는 자신의 내면을 인정하고, 주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민형을 선택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유진에게는 과거로의 회귀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찾는 모험이기도 하다.

민형 입장에서 보면, 제8~9회는 유진의 내면을 발견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민형은 제4~7회에서 끊임없이 유진을 오해하고 그녀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오채린의 방해 때문이었다. 오채린은 유진에게 향하는 민형의 관심을 눈치채고, 민형이 유진을 오해하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유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민형은, 자신의 방식으로 유진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7회에서 시도된 민형의 노력은 제8~9회에서 결실을 맺으면서 민형은 자신이 유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시에 민형은 제4~7회에 유진에게 향하는 관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펼쳤다. 이러한 과정을 중첩하면, 민형은 유진이라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수행하고 있었고, 유진을 사랑하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힘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유진의 내면을 발견하는 성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

민형에게는 유진으로 향하는 길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길과 점차 합치되고 있었다. 또한 유진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녀의 사랑을 이해하는 순간 자신의 내면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힘도 확보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각자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 내면에 깃든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헤어져야 한다. 제10회는 각자 내면에 진실에 접근했지만, 외부적 요인(상혁의 추락과 주변의 기대)에 의해 헤어져야 하는 두 사람의 처지를 그리고 있다.

제11~14회는 유진과 이별한 민형의 고통을 다루고 있다. 민형은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실의에 빠지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로 내몰린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찾아 현재를 헤매면서, 점차 자신이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강준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좇아 유진과 주변의 사람들 사이를 헤매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강준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한다. 자신이 강준상일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순간, 그는 다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 기억마저 잃을 위험에 처하고 만다.

제14회에서 사건 전개는 특히 주목된다. 제14회에 들어서면 민형은 준상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이 준상이었다는 증거를 손에 넣었고, 주변 정황 역시 이러한 확신에 부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 출국을 결정하고 유진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이 상황은 제2회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제2회에서 준상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후 유진을 떠날 결심을 하였고, 제14회에서는 민형이 준상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기에 유진을 떠나려 한다는 동일한 결심을 한다. 이러한 결심은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데, 제2회에서는 준상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기억을 잃고 미국으로 떠난 반면에, 제14회에서는 민형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떠나지 않고 잃었던 기억을 되찾는 결과를 맞이한다.

준상은 교통사고로 유진을 잃고 자신을 잃었지만, 민형은 교통사고로 자신을 되찾고 유진마저 되찾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민형은 준상의 기억마저 되찾는

바람에 준상과 민형을 일치시키는 통합된 자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찾는다는 발견의 과정은 다시 유진과 헤어져야 하는 새로운 고통(갈등)을 불러오고야 만다(제15~18회).

회차		발견 사실과 인지 내용	갈등 상황
제1회	아버지를 찾으려는 시도(춘천으로 전학)	춘천으로 모험적인 이주를 결행한 강준상은 아버지의 정체를 발견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정체를 감추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출생에 대한 추적과 유진에 대한 마음
제2회	자신을 잊으려는 시도(미국으로 이주)		
제3회	새로운 삶에의 도전(한국으로 전근)	강준상은 자신을 이민형으로 알고 한국으로 이주한다.	기억 상실로 인한 내적 고민 부재
제4회 ~ 7회	강준상이라는 과거와 유진이라는 연인과의 대면	민형은 유진과 만나 강준상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유진을 통해 두 사람의 과거 감정을 발견한 이후, 점차 자신이 내면에 깃든 유진에 대한 사랑을 발견한다.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려는 시도 / 유진을 이해하려는 노력
제8 ~ 9회	민형의 고백과 유진의 선택	민형은 유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유진은 민형을 선택하기로 결정한다.	유진의 내면을 발견하는 과정
제10회	유진과의 작별	민형은 유진을 통해 내면의 사랑을 발견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사랑이 발견되는 순간 두 사람을 헤어져야 한다.	내면의 발견과 이별의 시작
제11 ~ 14회	준상을 찾기 위한 민형의 시도	유진과 헤어진 민형은 실의에 빠지지만, 그로 인해 자신을 찾아야 하는 절박함을 인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자신을 발견하려는 고통스러운 시도
제15 ~ 18회	아버지를 찾기 위한 준상의 시도	준상의 기억을 회복한 민형은 그 기억의 끝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찾고자 하고, 그러한 아버지의 기억을 되찾는 순간 다시 유진과 헤어져야 한다.	유진과의 안타까운 이별
제19회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는 준상	준상은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확인하지만, 유진을 위해 자신이 떠나기로 결정한다.	자신과의 용감한 이별
제20회	유진을 되찾으면서 자신을 되찾는 준상	병을 이기고 돌아온 준상은 자신을 찾아온 유진과 재회한다.	자신과의 진정한 화해

이처럼 <겨울연가>는 준상이 자신을 찾는 여정과 유진이 사랑을 얻는 여정이 교차하는 작품이다. 준상이 아버지를 찾아 자신의 정체를 알고자 노력할 때 유진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의 정체를 확인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을 때는 유진의 사랑을 포기해야 했다. 준상이 민형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유

진을 사랑할 기회를 얻었지만, 민형이 준상으로 돌아가고 아버지를 찾아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을 때 준상은 다시 유진에게 멀어져야 했다.

준상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과정은 유진의 사랑을 얻는 과정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자기 찾기와 사랑 찾기는 이율배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한쪽 찾기가 다른 찾기를 배척하는 모순적 상관성을 견지했다. 유진도 마찬가지로 준상이 스스로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유진에게서 멀어졌을 때 준상을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었고, 준상이 돌아와 가까운 위치로 다가오고 점차 준상의 내면과 비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준상과 헤어져야 하는 운명에 직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준상의 정체성 찾기는 유진의 사랑하기와 엇갈린 행보를 보인다고 하겠다.

제19회는 그러한 측면에서 준상이 비밀을 알았지만 유진을 떠나는 서사의 마지막에 해당한다. 제20회에서 준상의 비밀을 알게 되자 돌아오는 유진의 서사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아 찾기와 사랑 찾기의 모순적 관계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재회하는 시점에서야 일치하는 관계로 변모한다.

사랑을 찾는 서사는 멜로드라마의 전형적인 서사이다. 반면 자신을 찾는 서사는 성장과 성찰의 서사에 해당한다. <겨울연가>는 단순 멜로드라마로서 사랑 찾기에만 전념한 서사가 아니었다. 앞에서 분석한 대로 사랑 찾기는 늘 자아 찾기와 상관성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관성은 한류의 열풍으로서 <겨울연가>의 특징을 재고하도록 만든다.

멜로드라마의 기본 성향과 보편적 양식으로서 낭만적 정서와 이별의 애상만이 이 드라마를 한류의 중심으로 이끈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사랑을 찾는 인물들의 내면에서 타인을 향한 의문과 발견의 행동만큼 자신을 향한 성찰과 의지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겨울연가>에서 발견한 것은 멜로드라마의 보편적 정서가 아니라 자아 찾기의 특수한 결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렇다면 그것은 일본인들이 찾고자 한 것은 관습적 멜로드라마의 고착화된 문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숨어 있는 자아 발견의 새로운 측면이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권현주, 「일본어 가나(カナ)표기의 변화 양상에 관한 考察」, 『日本語文學』 1-28, 한국일본어문학회, 2006.
- 김기국, 「드라마의 신드롬과 미디어의 탈신화화 <겨울연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 김남석, 『영화, 어떻게 읽을 것인가』(II), 연극과인간, 2023.
- 김동주,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15(1), 한국방송공사, 2003.
- 김호연, 「<겨울연가>, 그 내적 체험을 위한 검토」, 『언어와 문화』 1(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5.
- 박규태, 「한류담론과 일본문화」, 『日本學研究』 24, 일본연구소, 2008.
- 백승국, 「드라마 <겨울연가> 내러티브의 기호학적 분석」, 『텍스트언어학』 18,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5.
- 스테판 샤프, 이용관 역, 『영화구조의미학』, 영화언어, 1991.
- 신광철, 「한일간 문화콘텐츠 교류의 현대단계와 전망」, 『日本思想』 9, 한국일본사상학회, 2005.
- 양은경,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텔레비전의 소비」, 『한국방송학보』 20(3), 한국방송학회, 2006.
- 오미영, 「일본 내 한류 수용과 타자(他者) 인식의 변화」, 『현상과 인식』 30(1),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6.
- 이인표, 「<겨울연가>(2003)를 통해 본 멜로드라마의 장르론」, 『아시아문화연구』 62, 아시아문화연구소, 2023.
- 장-미셀 우구를리앙, 김진식 역, 『욕망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018.
- 정해경, 「<겨울연가>의 패러독스」, 『일본문화연구』 41,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
- 최영목, 「동북아시아 지역의 텔레비전 드라마 유통과 민족주의」, 『언론과학연구』 6(1), 한국지역언론학회, 2006.
- 최인호, 「일본 관광객의 한류관광 체험」, 『소비문화연구』 9(3), 한국소비문화학회, 2006.
- 칸 사토코, 「근·현대 일본의 연애 사정」, 『여성학논집』 23(1), 한국여성연구원, 2006.

Abstract

The Grammar of Melodrama and the Narrative of Finding True Self in <Winter Sonata>

Kim, Nam-Seok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Winter Sonata> was a television drama that led the 'Korean Wave (Hallyu)' craze in Japan in the 2000s. The popularity of this work in Japan surprised not only Japan but also Korea. Since then,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this film has been intensively published.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analyzed the causes and results of the popularity of 'Korean Wave (Hallyu)'. However, many studies focused on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

Even in Japanese studies, it was argued that Korean Wave (Hallyu) was not a Korean influence but a Japanese choice. This study attempted to reduce the perspective of these existing studies to the text, and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ammar of <Winter Sonata> as a melodrama and the narrative of finding true self that are combined in multiple layers. <Winter Sonata> was a work that aimed for a narrative goal of attempting to regain oneself while faithfully implementing the characteristics and grammar of melodrama. Therefore, <Winter Sonata> was basically faithful to the grammar and characteristics of melodrama aiming for romantic emotions, while at the same time preparing for basic consultation and reflection on self-identity as the essence of the narrative. The success of Korean Wave (Hallyu) stems from the parallelization of these two internal tendencies.

Keywords <Winter Sonata>, Melodrama, Korean Wave(Hallyu), Love, Finding Self

이 논문은 2025년 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6월 20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